Modern English Education, Vol. 16, No. 1, Spring 2015

초등영어 예비교사 모의수업 교육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인식 연구*

박선호
경인교육대학교

Park, Seon-Ho. (2015). A study on perception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about English microteaching education for pre-service teachers. *Modern English Education, 16*(1), 127-151.

This study explores how elementary school teachers at the early stages of their teaching profession perceive about English microteaching education for pre-service teachers in the universities. It also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relevant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nglish microteaching programs. For the research 12 in-service teachers were surveyed with a questionnaire including open-ended questions. They had 1.5~4.5 years of teaching experience. The teachers were expected to reflect their English microteaching experience and the process of being a novice English teacher in the elementary school rather vividly. The results showed a variety of practical issues such as types, frequency, duration, timing, and grouping in the English microteaching could be implemented in the teacher training universities. Respondents' comments on and opinions about the practicum in relation to teaching English training were also revealed.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s some practical suggestions are made for the curriculum development for English microteaching for pre-service teachers.

**[elementary English/pre-service teachers/microteaching/
초등영어/예비교사/모의수업]**

I. 서론

세계적으로 영어는 이제 국제어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이제 온 국민의 중요한 열망의 대상이 되었고 영어교육 측면에서도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일찌감치 감지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어로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져가는 영어를

* 본 연구는 2012학년도 경인교육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짐.

www.kci.go.kr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학교 공교육의 내실화와 전문성을 위하여 유능한 영어 교사의 선발 및 육성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김진완 외 5인, 2004).

특히 초등영어교육의 획기적 변화야말로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7년 10월에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의 일부를 개정 및 고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7). 이에 따라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자에 대하여는 면접의 일정 부분을 영어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업능력 평가를 실시할 경우,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자에 대하여는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능력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영어구사능력의 필요성 증대와 이에 따른 각급 공교육에서의 영어교육 강화를 위한 영어교사들의 영어능력 제고에 대한 인식은 매우 빠른 속도로 퍼지며 교사 임용에 있어서도 그 선발 시험 방법에 있어서 예비교사들에게 영어 인터뷰와 영어수업 실기 능력을 요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 비하여 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육과정에서는 현실적인 영어 모의수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영어 수업 능력 평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세안이 정착되어 있지 않다(김현진, 2010; 박영예, 2007). 대부분의 교육대학교에서는 수업실기 능력을 교육할 수 있는 별도의 강좌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영어교과교육 과목 내의 일부 시간을 교수 개인적 강의 계획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실정이다. 예를 들어, A교육대학교에서는 전공과정 영어 관련 개설 교과목으로 설치되어 있는 2학년의 '영어과교육I'과 3학년의 '영어과교육II'라는 강좌에서 각 교수별로 1~3주 정도를 할당해서 학생의 모의수업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의 시간이 할당되어서 각 학생들이 충분하게 모의수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여타의 과목에서 영어과 수업을 시연해보며 수업 실기 능력을 익힐 수 있는 과목이나 상황이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마저도 주로 학기말에 평가용으로 실시되어 영어 수업에 대한 심층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모의수업을 실행하기에 역부족인 측면이 있다. 초등학교 임용시험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영어 수업 능력평가에 대한 대비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각 교육대학교별로 임기응변적으로 특강 형식으로 준비를 시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각 교육청에서 제시되고 있는 영어 수업능력 시험의 유형이라든지 구체적인 정보도 부재할뿐더러 각 학생들이 교육대학교 재학 시에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떠맡기게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영어교육과에 소속된 교수들도 저마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대비는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모의수업에 대한 준비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향후 강화될 이 부분에 대한 영어 수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 동안 교육대학교 학생의 모의수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일부 있었지만 그

www.kci.go.kr

마저도 모의수업 자체에 대한 체계적 연구라기보다는 교사의 언어나 상호작용과 같은 미시적 초점에 국한되어 있다(김현진, 2010; 박영예, 2007; 이지연, 김영숙, 2011). 이에 교육대학교 모의수업에 대하여 좀 더 실제적인 안목에서 그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대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 되지 않은 현직 교사들이 현장에 나와서 영어수업을 실시해보았거나 실시하고 있는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이 과거 경험하였던 모의수업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향후 이를 개선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보다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초등영어 교사와 영어 수업 능력

1997년도에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영어가 정규과목으로 도입된 지 18년째 되었다. 그 동안 초등영어교육은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꾸준히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으로 바로 누가 초등영어를 담당할 것이며 담당 교사의 영어 능력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며 어떻게 그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자격과 관련되는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Brewster, Ellis와 Gebhard(1991)는 초등영어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로 초등학교 학생과 초등 교육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수의 자신감을 들고 있다. 이때의 자신감은 교수 자신의 자신감뿐만 아니라 영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배두본(1990)도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의 자질로 영어구사능력과 아울러 교수방법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박약우(1998)에 의해서도 유사하게 강조되고 있는 바이기도 한데 특히 초등교육에 대한 경험적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처럼 초등학교 영어교사의 자질로는 초등 교육 및 초등학생에 대한 이해 및 경험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공통된 요소이다(김영숙, 2000).

초등영어교사의 영어 수업 능력에 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영어사용능력과 수업능력 모두 주목을 받았다(고경석, 1997; 김재혁, 2004; 박영예, 2007). 특히 진경애, 김명숙과 이완기(2002)는 초등영어 교수능력 진단도구 및 적용 연구에서 초등영어 교사의 영어사용능력과 수업능력을 모두 중요한 요소로 주목하였다. 김재혁(2004)은 초등영어 예비교사를 양성할 때 영어구사력 증진을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면서 교원 양성기관의 강좌를 부분몰입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수업 실습을 좀 더 체험 위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www.kci.go.kr

초등학교 영어 수업능력을 논함에 있어서 2008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를 빠뜨릴 수가 없는데 이는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실시라는 방침이 교육부에 의해서 명확하게 전달된 것으로 이전에 비하여 영어 사용 능력에 대한 강조가 더욱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동안 영어 사용능력 자체를 개발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보다는 주로 이 제도에 대한 인식 혹은 교사 언어의 특징(김현진, 2010; 맹은경, 2009; 이영주, 이명애, 2011)이나 이를 분석하여 평가하기 위한 내용을 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남경옥, 2011; 이병천 외 4인, 2009; 이선, 2012; 이승복, 2005; 진경애, 이상하, 조보경, 2009). 이상과 같이 진행되어온 초등영어 교사의 영어 사용 능력 신장을 위한 연구 이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초등영어를 담당할 교육대학교의 예비교사들의 영어사용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모의수업의 현황과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2. 초등영어 모의수업

예비교사를 위한 영어능력 신장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모의수업이라는 것이 있다. Gebhard, Gaitan과 Oprandy(1994)는 예비교사 양성 기관에서 주로 실시하는 교수 활동을 4가지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실제 상황 혹은 동료를 대상으로 한 모의수업, 현장 학교의 교실 방문이나 비디오 참관, 자신이 실시한 수업 분석 연구, 수업 토론이 그것이다. 이 중 모의수업은 초등교사 양성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모의수업 혹은 수업시연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고 있다. 모의수업(microteaching)에 대하여 Allen과 Ryan(1969)은 실제 교수 활동 이전의 훈련 단계에서 사용되는 교수 연습 활동으로 5~20분 정도로 축소된 수업이라고 칭하고 한 두 개의 학습 주제와 특정한 교수 기법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하였다. Wallace(1991)는 모의수업을 교사의 교수 상황이 범위상 축소되고 모종의 체계적인 방식으로 단순화된 연수 맥락이라고 하였다. Wallace(1991)는 모의수업을 4단계의 진행(the brief, the teach, the critique, the reteach)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처럼 모의수업 혹은 모의수업의 범위는 학자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정의되기도 하지만(Ellis, 1994; Clifford, Jorstad & Lange, 1977) 본 연구에서는 동료 학생들이 있는 수업 현장에서 축소된 형태의 연습용으로 실시되는 수업이라는 의미로 모의수업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

국내에서 진행된 초등영어 모의수업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박영예(2007)는 초등영어 예비교사들에게 수업실습의 기회로 모의수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선(2012)은 TEE 수업능력 신장을 위한 예비초등영어교사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의수업 방안을 실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면서 동료 예비교사, 수업자, 담당교사의 평가 내용을 종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한편 예비교사들의 모의수업에 나타난 오류를 연

www.kci.go.kr

구한 김인옥(2007)은 초등학교 영어 교사들의 영어사용 능력을 교수학습계획서에 나타난 오류 분석을 통하여 시도하고 있다. 예비교사의 모의수업을 통한 정의적 영역에 대한 연구도 시도되었는데 김현진(2009)은 예비교사들의 영어교수 상황에 전개되는 불안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모의수업과 아울러 2~4학년에 일정 기간씩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실습 또한 예비교사들에게는 중요한 수업 경험의 기회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초등교사교육 기간 중 4학년에 실시하는 교육실습 기간 중에는 모든 교과목에 대한 다양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어라는 특정 과목에 대한 집중 훈련을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교육실습과 관련한 연구로 김광수, 김덕규와 이승복(1997)은 미국의 교육실습 사례를 소개하면서 교육실습생, 실습학교의 지도교사, 담당교수 등 관계자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교육실습을 다녀온 교육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활용한 연구에서 장경숙과 박미애(2005)는 대학교와 현장 학교의 협동 장학이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장경숙과 이선(2012)은 교생실습이 초등영어 예비교사에게 미치는 영향을 그들이 경험한 실습에 대한 설문을 통해 조사하여 보고하였는데 보다 더 충분한 실습이 되기 위한 방안 마련이 관계자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동료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의수업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교육실습기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필요성이나 방안 등에 대한 논의보다는 교육실습 자체에 대한 평가에 주로 그치고 있다.

초등영어 교사의 영어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등교사를 대상으로는 영어 연수가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고 이에 대한 방안이나 평가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주로 연수의 모형 개발, 연수에 대한 인식, 연수 이후의 수업 분석 등을 다루고 있다(김성연, 2002; 이문복, 김미경, 김혜련, 2009; 장경숙 외 5인, 2012; 전영주, 2012; 허근, 2011). 이에 비하여 초등영어를 장차 가르쳐야 할 예비교사들이 대학교 시절에 어떻게 초등영어교육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연구가 비교적 미흡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대학교 초등영어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의 모의수업 교육에 대한 현직 초등 교사들의 인식을 통하여 향후 개선할 수 있는 교육대학교 모의수업의 발전방향과 초등영어 모의수업 실행을 개선함에 따른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는 현재 A교육대학교 대학원에서 초등영어교육을 전공하고 있거나 수료한 지 오래 되지 않은 대학원생으로 경기(10), 인천(1), 서울(1) 지역의 초등

www.kci.go.kr

학교 현직 교사 12명이 참여하였다. 이들 교사들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자 교사가 6명, 여자교사가 6명으로 모두 교육대학교를 졸업하였다. 학부에서 이수한 심화과정은 6명이 영어교육이었고, 그 외의 6명은 윤리교육, 체육교육, 과학교육, 컴퓨터교육 등이었다. 이들은 특히 초등학교 근무 경력이 17개월에서 54개월로 교사 발령 이후 영어를 가르쳐 본 경험이 4개월에서 40개월에 이르고 있다. 이들 교사들은 일부 일반대학을 마치고 교육대학교를 다시 입학하여 다닌 1명을 포함하여 모두 교육대학교를 졸업한 지 그다지 오래 되지 않고 영어교육 수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교사로서 자신의 예비교사 시절을 회상하여 현직 경험과 연계하여 모의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이끌어내기에 적절한 (영어)교육 경력을 지녔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이들은 현재 혹은 직전에 초등영어교육 전공으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입장이기에 TEE 등 초등영어교육의 동향과 이슈에 민감하고 쟁점을 파악하기에 알맞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이들의 예비교사 시절의 모의수업의 경험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특징과 문제점, 개선 방향을 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설문을 통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1

설문 참여 교사 인적 사항

	성별	나이	대학교 심화 과정	교사 경력	영어수업 경력	출신대학 지역	현재 근무지
교사 A	남	31	윤리	41개월	4개월	경기·인천	경기
교사 B	남	29	체육	50개월	14개월	충북	경기
교사 C	남	37	영어	39개월	12년	경기·인천	경기
교사 D	남	31	윤리	52개월	16개월	경기·인천	경기
교사 E	남	31	영어	53개월	24개월	경기·인천	경기
교사 F	남	27	컴퓨터	17개월	4개월	경기·인천	인천
교사 G	여	30	영어	52개월	40개월	충남	경기
교사 H	여	24	영어	27개월	4개월	경기·인천	경기
교사 I	여	25	교육	29개월	6개월	강원	경기
교사 J	여	29	실과	54개월	18개월	경기·인천	경기
교사 K	여	27	영어	54개월	4개월	전북	경기
교사 L	여	27	영어	18개월	4개월	경기·인천	서울

2.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항목들은 기본적으로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성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는 연구들이 주로 모의수업에 관한 다면적 평가나 수업 중 나타난 상호작용에 관한 것이거나 TEE에 관한 것들로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모의수업의 실제적 이슈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과 관련된 항목을 찾을 수 없었다. 설문지가 제시된 경우도 드물어서 이들 연구의 내용을 통하여 이끌어낼 수 있는 관련 개념의 항목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질문으로 제작하였다(강후동, 2008; 김영숙, 이지연, 2012; 김영태, 김수진,

www.kci.go.kr

2003; 김인옥, 2007; 박영예, 2007; 이지연, 김영숙, 2011).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설문을 통하여 구하였는데, 1에서 5까지의 5단계 리커트 척도에 따른 강제 선택형 질문이 포함된 구조적 문항과 이들 질문에 대한 이유나 근거 등을 묻는 자유 반응형 질문이 포함된 비구조적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구조적 문항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함이었다. 설문 문항은 예비연구(pilot study)를 통하여 모의수업과 관련된 이슈들의 내용과 형식을 확인하여 수정 가감하여 완성하였다.

설문지에서는 교육대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영어과 모의수업에 대한 찬반 의견, 시행 횟수 및 형태(시기, 할당 시간, 역할 분담 등), 모의 수업과 관련되는 중요한 점, 어려운 점을 물었다. 이어서 자신이 대학생이었을 때 교실 영어를 익히기 위하여 취하였던 방식, 모의 수업을 위한 준비 방법과 재학생 시절과 현재의 영어 능력 개발 방법, 영어 수업 자신감,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하여 모의수업과 관련되는 제반 사항을 망라하여 질문하였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 설문지는 사전에 연구 참여에 동의한 남녀 각 6명, 총 12명의 초등학교 현직 교사들에게 이메일로 전송되어 1~5일 사이에 수집되었다. 수집된 응답지에는 교사 A부터 교사 L로 고유 번호를 붙여서 각 항목별로 정리하였다. 각 문항에 따라 응답의 빈도와 유사성, 차이점, 특이 사항 등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의견 및 인식의 흐름을 파악하여 내용별로 목록화하여 데이터로 관리하여 질적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여 결과 논의에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예비교사를 위한 영어 모의수업 과정의 필요성

우선 초등교사들에게 초등교원 양성 기관인 교육대학교의 영어과 모의수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었다. 12명의 교사 중 8명이 '매우 찬성한다', 4명이 '찬성한다'로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교사들은 이때의 모의수업 경험은 수업에서 학습한 이론을 실제 활용해볼 수 있으며 수업 지도안 작성, 협력수업(co-teaching)에 대한 기술적 측면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나아가 아래에 제시한 바와 같이 당시 수업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평가해볼 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기억을 떠올리기도 하였다. 이처럼 영어 모의수업 과정에 대한 필요성은 그 내막이나 경험의 정도에 상관없이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 "영어 수업 특히 영어로만 하는 영어 수업은 단기간의 훈련으로는 진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학부시절부터 필요성을 느끼고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사 J, 여)

www.kci.go.kr

"수업에서 학습한 교과 이론을 실제 활용해 볼 수 있으며, 교생실습 이전 수업 기술 신장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었다." (교사 B, 남)

"영어 수업 시연을 준비하면서 수업 지도안 작성 및 협력수업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을 경험할 수 있으며, 자신이 수업 시연을 통해서 사용하는 언어의 적절성 및 학습자와 어떤 상호작용 측면에서 부족한지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교사 C, 남)

2. 수업 시연의 형태, 시간, 횟수

1) 교육대 재학 중 바람직한 영어 모의수업 실시 횟수

교사들이 초등교육 현장에 나와서 돌이켜 볼 때 '교육대 재학 시에 바람직한 영어 모의수업의 실시 횟수'를 묻는 질문에 5명이 5회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다음으로 3회, 6회, 9회 이상에 각각 두 명씩 응답하였다. 모의수업의 횟수는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지만 다른 과목 등 교육과정의 종합적 고려를 통하여 볼 때 던진 질문으로 평균적인 교사들의 응답은 2, 3학년에 2번씩, 4학년 1학기에 1번으로 총 5회를 주장하였다. 여러 번에 걸친 수업 시연을 통해 교실영어와 수업전개 패턴을 예비교사들이 어느 정도 파악한다면 실제 현장에서도 쉽게 응용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으며 외국어를 사용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교사가 수업에 익숙해질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기도 하였다. 이는 교육과정상 영어과 심화 과정에 있지 않은 예비교사들에게는 다소 벅찬 횟수일 수도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을 것이지만 영어 수업 능력이 단기간에 신장되는 것이 아닌 점을 감안하면 추후 교육과정 운영에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일이다. 관련된 의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학년의 경우 입학 후 첫해에는 영어 교수법에 대한 측면과 학교 현장에서의 수업이 운영되고 준비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4학년의 경우 특히 2학기 임용시험에 매진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2학년에 2회, 3학년에 2회, 4학년 1학기의 1회 총 5회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교사 C, 남)

"모의수업 경험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수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5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시연을 참관한 후 수업 후 협의회를 통해 상호간 많은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 D, 남)

www.kci.go.kr

2) 학기 중 모의 수업의 시기

‘모의수업을 언제 실시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33%의 응답자인 8명이 학기 중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원하였고 학기 중 2~3 차례 집중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인 응답자가 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영어과교육1’과 같은 모의수업을 전적으로 다루지 않는 경우와 일부 교육대학교의 경우처럼 전적으로 다루는 강좌를 다소 구분 없이 답하기도 하였다. 전반적으로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하여 전체 차시를 구현해본다든지, 변화의 과정을 관찰한다든지 하며 자기 성찰의 기회를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들이 바라보는 모의수업 실행은 차분하게 집중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 “최소한 한 학기 정도는 영어수업 시연만 집중적으로 하는 강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모의수업 전후로 학생끼리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모의수업내용에 관해 교수님의 전문적인 설명이 적절한 타이밍에 접목되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교사 D, 남)

> “학기 중 지속적으로 시연을 하면, 점차 발전해나가는 과정, 지난번에는 미처 몰랐던 점 등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교사 G, 여)

3) 바람직한 모의 수업 형태

모의수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바로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로 개인적으로 혹은 조별로 하는 방안에 대한 점이다. ‘바람직한 모의 수업 형태’에 관련하여 2인 1조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항목에 5명이 동의하였고, 개인별로 하는 것에도 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이한 것은 초반에는 조별로 하다가 점차 개인이 하는 것 혹은 개인별, 조별을 섞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래에 제시된 바와 같이 원어민과의 2인 1조 협력수업이 있는 현장과의 연계를 생각해서도 타당성이 있는 의견이며 혼합하자는 의견 또한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개인적으로 수업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2인 1조로 팀티칭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팀티칭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불편하여 외국인보조교사와의 수업시연을 미리 경험해 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교사 H, 여)

> “수업 시간 및 현실적인 요건을 고려했을 경우 개인이나 3~4인의

www.kci.go.kr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 혹은 너무 적은 시간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2인 1조로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교사 C, 남)

4) 모의 수업 시간의 길이

모의수업의 형태와 더불어 '모의 수업 시간의 길이' 또한 실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몇 명이 어떤 길이로 하면 가장 적절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흔히 나타나는 조별 구성으로 4인 1조와 개인별로 실행했을 경우로 나누어 설문하였다.

먼저 4인 1조의 경우, 5명의 교사가 20분 수업을, 네 명의 교사가 40분 수업을 선호하였다. 이는 아래의 응답의 예와 같이 1인당 최소한 5분은 하는 것이 좋다든지, 실제 초등학교 수업 상황이 40분이기 때문에 40분을 실행함으로써 수업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인 것이다.

"실제 학생이 없을 테니, 한 사람당 5분씩 마이크로하게 활동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교사 H, 여)

"수업 시연은 한 시간 수업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 그래서 하나의 수업 안에서 4명이 적절히 파트를 분배하여 시연을 하면 수업의 흐름을 익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교사 G, 여)

다음으로 개인별 수업을 하는 경우인데, 20분에 6명이, 10분에 4명이 동의하였다. 개인별로 할 경우에 5분이라는 더 짧은 시간보다는 최소 10분, 혹은 20분에 최소한의 도입과 전개, 혹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는 10분에서 시작하여 점차 늘려가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간 구성의 변화 혹은 혼합은 한 개인 교수가 단독으로 실행하기는 다소 역부족인 점이 있어서 교육과정 구성면에서 좀 더 탄력적, 유기적으로 진행될 때 구안해 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개인별로 하기를 선호한 의견들은 다음과 같다.

"개인별로 할 경우 수업의 도입부터 전개 마무리까지 일련의 과정을 혼자 보여줘야 하므로 조별 수업(4인 기준)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교사 D, 남)

"가능한 많은 시간을 시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활동을 2가지 정도 시연할 수 있는 20분이 적당할 것이다." (교사 B, 남)

www.kci.go.kr

"영어 수업은 아이들 활동 위주로 하기 때문에 10분이면 40분 수업 활동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본다." (교사 L, 여)

5) 조별 모의수업 시 교사와 학생의 역할 분담

모의수업 실시에서 흔히 사용되는 조별로 교사와 학생 역할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두 가지로 질문하였다. 먼저 조 내에서 교사와 학생 역할을 나누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가 6명으로 50%를 차지하였고, '매우 반대한다'에도 두 명이 표하였다. 이는 학생 역할을 조내에서 할 경우에 수업 내용과 절차를 상세히 알고 있는 조원보다는 수업 내용을 모르는 다른 급우들이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의미에서 반대하는 것이었다. 한편 굳이 조내에서 학생 역할까지 한다면 수준별 수업인 것으로 설정하여 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응답자들은 발표자들은 발표에 힘을 모아야지 진행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조원 중 일부가 학생 역할을 하다는 점에는 적극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 올바른 방향으로 판단된다. 자칫 멋진 모의수업을 위하여 예비교사들이 조원을 학생 역할로 하면 안될까 하는 의도를 갖는데 대해서 교수자가 명심해야 할 유의사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굳이 학생의 역할을 나눠서 연습할 필요는 없는 듯하다. 학생 역할을 나눠서 연습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반응을 미리 예측해서 계획대로 수업을 한다는 것인데, 학생들의 반응이 항상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본인의 계획과 다른 상황이 생겼을 때에 대처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 역시 수업 시연의 중요한 요소이다." (교사 J, 여)

"만약 조원내에서 교사와 학생 역할을 나누어 할 경우는 학생들의 수준을 달리 설정하여 학생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교사 I, 여)

위와 반대로, 조원은 교사, 다른 급우는 학생 역할을 하게 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9명이 '매우 찬성한다' 혹은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급우들이 학생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비판적 사고를 엿볼 수 있는데 아래의 응답 내용이 주는 시사점이 크다.

"사실, 수업 시연을 할 때 교대 친구들이 학생 역할을 자주 해 주는데 이것이 과연 효과적인지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교대 학생들은 거의 항상 (오답마저도)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을 보여주는데 실제학생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경기도교육청 TEE 인증을 받기 위해 수업 시연을 할 때에도 대상 없이 시연했는

www.kci.go.kr

데 그리 나쁘지 않았다. 어차피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것은 교사의 발화와 수업 행동이지 학생들의 반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상 학생들이 있음으로 인해 시선처리나 몸짓을 좀 더 자연스럽게 연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반응으로 인해 수업자가 다음 행동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기에 도움이 되기는 한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본다." (교사 G, 여)

3.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TEE)

1) 모의 수업을 위한 이상적인 교실 영어 학습 방법

TEE 형태의 수업을 위하여 교실영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모의수업샘플 동영상이나 서적 등을 통한 공부, 교실 영어 전문 과목 이수, 영어회화 시간 중 교실 영어 수업 비중 강화의 순으로 답하였지만 의견의 강도는 비교적 팽팽하게 나타났다. 아래에 나타난 것처럼 교육대에서 교실영어 전문 강좌가 필요하며 이 때 학생들은 좀 더 비중있게 관심 가지고 교실영어를 학습할 것이라는 입장이 있는데 주로 남학생의 입장이 대변된 경우가 많다.

"교실 영어가 영어 수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예비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에서 관련 전문 과목이 개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교사 B, 남)

"영어 회화 수업 시수에 교실 영어만 학습해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수업 시연과 교실 영어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강좌가 있고 그 시간에 모의수업샘플 동영상과 서적 등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 D, 남)

반면에 여교사의 입장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을 띠는데 우수 수업 동영상을 통한 교실영어 공부가 좋다는 입장이다. 영어 회화 시간을 잘 활용하는 수준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나의 경우에는 따로 교실 영어를 공부하지는 않았었다. 나는 영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서 혼자 영어 공부를 했지만 교실영어만을 위한 준비는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도 지도서나 우수 수업동영상을 보면서 금방 교실 영어에 적응했던 것 같다. 단편적인 교실 영어 수업보다는 전반적인 영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수업이 개설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한다." (교사 G, 여)

www.kci.go.kr

> “영어 회화 시간에는 자연스레 선생님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개인적인 영어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 수업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본다. 교실 영어 전문 과목 개설은 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영어수업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영어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 않나. 교사 혼자 교실 영어를 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 중요한 것은 영어 수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수업 내용이라고 본다.” (교사 H, 여)

2)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을 위하여 자신이 택하였던 방법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을 위하여 자신이 택하였던 방법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은 초등교사 네트워크인 인디스쿨 등 인터넷 사이트와 개인적 자료 수집 및 연습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특징적인 것은 교사가 되고 나서 이러한 방법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구체적인 노하우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재학시에는 사실 교사용 지도서를 집중적으로 참고하든지, 개인적으로 자료를 찾거나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는 정도에 지나치지만, 교사가 되고 나서 수업의 진정성 있는 필요들이 구체화되면서 각자의 방법도 다양해진다고 하였다 이 점에서 영어 연수를 열심히 받고 동영상 등을 참고하였다는 진술에 시사점이 많다.

> “영어 전담이 하고 싶어서 내가 택했던 방법은 영어 연수를 열심히 받는 것이었다. 영어 전담 자리는 항상 치열했기에 신규인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았다. 그래도 기회를 기다리며 4년간 경기도 교육청에서 개설된 모든 영어연수를 들었다. 그 과정에서 영어 실력도 향상되었고, 수업 자료도 얻게 되었으며 모의수업기회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전담이 되어 수업을 준비하면서 인디스쿨과 같은 사이트에서 게임이나 활동 아이디어를 많이 찾아봤던 것 같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나오는 우수수업 책자나 동영상도 참고했다.” (교사 G, 여)

3)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 실시 자신감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 실시 자신감에 대한 질문은 재학 시와 현재의 두 가지로 나누어 설문하였는데, 두 명의 교사가 재학 시나 지금이나 ‘자신 있음’으로 동일하게 답하였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그저 그러함’이나 ‘자신 없음’에서 ‘자신 있음’으로 나아졌다고 응답하였다. 교사가 되고 나서 경험이 늘어나면서 자신감이 향상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한 교사는 오히려 자신감이 약간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아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재학시에 높았던 자신감은 현장에서 외국 생활을 하다 온 학생들에 대한 약간의 긴장감이 오히려 자신감을

www.kci.go.kr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 교사는 학부 시에도 높은 영어실력과 교환학생, 국제학교 교사 경험 등으로 보다 향상된 영어 수업 능력일 것인데도 스스로 느끼기에 그렇다는 것이다.

> “두려웠다. 그 때는 또 TEE 가 유행할 때가 아니라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 자료도 많이 없었고, 일단 친구들 앞에서 영어로 수업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나의 영어 구사 능력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교사 G, 여)

> “팀원들과 함께하고 본인의 비중이 많지 않았다. 다만 동기들 앞이라 조금 떨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요즘은 다양한 학생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차시 내용에 알맞은 다양한 활동을 매 시간마다 구성하여 수업하는 것이 쉽지는 않고 외국에 다녀와서 영어수준이 높은 아이들이 있어 긴장되기도 하다.” (교사 L, 여)

4)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에 대한 의견

영어를 사용하여 영어수업을 진행하게 하는 방침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들 중 네 명이 ‘매우 찬성한다’, 그 외 ‘찬성한다’, ‘그저 그렇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에 각각 두 명씩 응답하였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응답으로 이 방침에 대하여 매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정적인 입장도 네 명이나 된다는 것을 볼 때, 이 방침에 대해 교사들은 자신의 영어수업 실시능력에 상관없이 다양한 이유로 응답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찬성 쪽의 의견은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은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영어노출을 해줄 수 있다는 것과 어중간하게 국어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말 설명에 과도히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인 것이다.

> “우리나라와 같은 EFL환경에서 영어 수업 시간이 집중적으로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영어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 C, 남)

> “교사가 한국말을 쓰게 되면 초등학교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사의 수업내용에 대한 우리말 설명에 너무 많은 부분을 의존하게 된다.” (교사 B, 남)

반면 학생들의 수준을 감안해 볼 때 일반 교실에는 학습 능력이 낮은 학생이 존재하게 마련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좌절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어서 영어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갖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국어를

www.kci.go.kr

사용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볼 때 나름대로 의미있는 의견으로 판단된다.

>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 우수한 아이들은 영어로만 하는 수업에 흥미와 자신감을 느끼고 잘 따라와 주지만 부진아가 존재하는 일반적인 교실에서는 영어로만 수업을 하게 될 경우 좌절감을 느낄 아이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문법적인 부분이나 확실한 이해가 필요한 것은 한국어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 G, 여)

> “현실적으로 한국어를 섞어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때가 많다.” (교사 L, 여)

5) 영어 수업시간에 모국어를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앞 항목과 관련되는 질문인 영어 수업시간에 모국어를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세 명이 ‘매우 찬성한다’, 나머지 응답자가 모두 ‘찬성한다’로 답하였다. 모국어 사용의 비율로는 50%, 10%가 각각 한 명씩이, 나머지 응답자는 모두 20%, 혹은 30%로 응답하였다. 어떤 경우에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질문에는 주로 학생의 영어 수준이 낮을 때, 새로운 어휘나 문법 등 전달 내용이 어려울 때, 문화 차이, 게임 법칙 등 어려운 개념을 설명할 때를 들었다. 이처럼 모든 교사들은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을 인정은 하되 학생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는 최근 일련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모국어의 적절한 사용은 아동들의 정체성, 영어에 대한 태도, 내용 이해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 “학습 능력이 낮은 경우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어려운 내용을 원어민이 설명할 때 보조할 수 있다.” (교사 A, 남)

>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법 또는 어휘에 대해 설명할 때” (교사 B, 남)

> “영어로 설명했는데 학생들이 이해를 못할 때, 다소 복잡한 게임 규칙 등을 설명할 때, 우리 말로 말해야 명확하게 전달되는 내용일 때” (교사 D, 남)

> “문법, 문화차이를 설명해야 할 때, 여러 번 영어로 설명해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을 때” (교사 E, 남)

www.kci.go.kr

4. 모의수업 실시에서 어려운 점

‘모의수업을 실시할 때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복수의 선택사항을 순서대로 적어보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비교적 다양한 순위를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수업 계획서 제작’이 상위 우선순위에 가장 많이 들었고, 다음으로 ‘수업 구성 및 운영’, ‘팀원간의 협동’, ‘영어 구사력’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모의수업을 실시할 때 눈에 띠는 것 중에 가장 강렬한 것은 영어 구사력이기 때문에 이들이 겪는 어려움의 순서는 의외의 결과로 보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모의수업을 보는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각자 준비한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라는 것이 애로라고 하였다. 모의수업을 진행하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수업 계획서 작성, 수업 구성 및 운영에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한편, 팀원간의 협력이 어렵다는 점에서 교수는 개인별 혹은 조별로 모의수업의 형태를 구성할 때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애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들은 다음의 예들에서 살펴볼 수 있다.

> “수업 계획서는 정해진 틀이 없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 막막했던 것이 사실이다. 여러 가지 틀을 미리 보여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 단,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자기 것이 좋다고 여기는 태도도 문제이기에... 우선은 많이 배우도록 하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면 참 좋겠다.” (교사 H, 여)

> “팀원간 협동하는 것이 어렵다. 여러 명이 한 수업을 구상했을 때 별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다. 결국 한두 사람의 의견에 따라가게 되고, 발표를 주도하는 것도 그 한두 사람이다.” (교사 L, 여)

5. 모의수업 평가 시 중요한 사항

‘모의수업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50%의 응답자가 수업내용 구성 및 수업계획서, 수업 운영 및 진행, 교실영어 구사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일부 응답자는 수업 운영 및 진행을 가장 우위에 두기도 하였다. 이는 바로 앞에서 논의한 모의수업 실행에 따른 어려운 점에 대한 응답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애로 사항이 평가 시에도 중요성으로 작용한 것이다. 교실영어의 능숙한 구사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예비교사로서 더 중요한 것은 수업 구성 능력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현장에 나와 보니 아무리 영어를 잘 구사하여도 결국은 학생들과의 소통과 흐름, 그 날의 학습목표를 잘 달성하였는가의 중요성을 깨닫는다고 하며 지도 계획이 충실해야 함을 강조하

www.kci.go.kr

기도 하였다.

> “현직 교사라면 수업 운영 및 진행과 유창한 교실영어 구사가 더욱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겠으나, 현재 교사 교육을 받고 있는 학부생의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수업 내용을 구성하고 치밀하게 계획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사 B, 남)

> “수업 구성이 엉망이면 아무리 유창한 교실 영어를 구사하고 학생들을 잘 통제해도 그 수업은 성공적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교실영어나 수업 진행 능력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본다.” (교사 G, 여)

6. 교육대 재학 시 모의수업 경험의 현장 수업 도움 정도

‘교육대 재학 시 모의수업 경험이 현장 수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가 한 명, ‘도움이 되었다’가 네 명, ‘그저 그렇다’ 네 명,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 응답자가 두 명이었다. 긍정적인 응답이 50%에 미치지 못한 것에 비하여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경우가 50%인 것을 보면 모의수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에 비하여 매우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체로 본인이 수업을 직접 참여해 본 경험이 부족하거나 모의수업에서는 주로 영어구사능력을 치중하여 보는 경향이 있어서 당시의 영어 실력을 비추어 볼 때 후에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이기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학생 시절의 모의수업이 좀 더 많은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수업 계획서 작성, 수업 구성, 자료 찾기 등 구체적인 방법들에 실질적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모의수업이 될 수 있도록 교수자는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준비와 시연의 과정이 타 과목에 비해 훨씬 부담스럽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과정이 현장에서는 도움이 되었다.” (교사 B, 남)

> “모의수업횟수가 1회 정도로 조별 발표수업에 그쳐 수업 진행 역할을 하지 않은 이상 현장에서 영어 수업 실시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은 되지 않았다.” (교사 K, 여)

> “대학교 시절 영어 수업 시연에서는 아무래도 영어구사능력에 치중하여 보게 되는 경향이 있다.” (교사 L, 여)

www.kci.go.kr

7. 재학 시절의 교생 실습

학기 중 강의 시간에 진행되는 모의수업은 교육대학교별로 사정은 다소 다르지만 대부분 2학년부터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교생 실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모의수업이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중에 실시해보는 미니 수업인 것에 비하여 교육실습은 교사의 수업을 직접 관찰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실제 상황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교사인 이들 응답자들은 과연 재학 시절 교생 실습 중 어떠한 경험을 하였고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모의수업과 연관되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1) 교생 실습 중 영어 수업 관찰 기회

'교생 실습 기간 중에 영어 수업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50%인 6명이 기회가 없었다고 하였고 나머지 6명은 있었다고 하였다. 관찰 경험이 있는 세 명은 영어전담교사의 수업을, 두 명은 동료 학생의 수업을, 한 명은 지도교사의 수업을 관찰하였다고 하였다. 이들이 최소한 3회 정도 교생 실습을 2~4주씩 세 차례 정도 나간다고 할 때 이러한 경험은 매우 적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 수업을 공개하는 선생님이 많지 않고 대신에 동료 교생의 수업을 그나마 볼 수 있었다는 내용이 많았는데 이는 교생 실습 중 영어 수업 참관 및 지도에 좀 더 전문적인 현황 파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가 실습 중에 지도하러 나갔을 때도 영어 전담 선생님은 교생 실습 지도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수업을 공개하면서까지 나서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담 선생님의 수업을 참관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기도 하였다. 영어 수업 능력은 여타의 과목에 비하여 단기간에 개발되는 것이 아닌 점을 감안하면 영어수업에 대한 참관과 토론의 기회를 자주 마련해주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관련된 교사들의 진술들은 다음과 같다.

> "교생 실습을 갔던 학교에서 대부분 영어 전담 교사가 영어를 지도하고 있었으며 영어 수업을 공개하여 수업을 참관할 수 있었다. 학부 3학년이나 4학년 때는 수업을 직접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같은 학교로 교생 실습을 나간 영어과 학생이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참관하였다." (교사 C, 남)

> "당시 지도 선생님의 수업을 참관했는데 지도서 그대로 수업을 하셨고, 영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교사 G, 여)

> "수업을 공개하는 선생님이 많지 않다." (교사 H, 여)

www.kci.go.kr

2) 교생 실습 중 자신의 영어 수업 실시 횟수

‘자신이 직접 영어 수업을 해본 경험’에 대하여 네 명은 경험이 없다고 하였고 다른 네 명은 1회, 두 명은 2회, 한 명은 5회 있었다고 하였다. 교생의 영어 수업 기회 또한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5회를 한 교사의 경우에는 대학 내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자신이 특히 영어 수업을 꼭 해보겠다는 꾸준한 인식이 있어서 가능한 경우이었다.

> “교생 실습을 나갔을 때 해당 학년에 속한 교생 실습 참가자들 중에서 학년 공개나 전체 공개 수업의 경우에는 해당 교과와 자신의 세부 전공 교과와 같은 사람이 수업 시연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교사 E, 남)
> “당시 학년 대표 수업으로 영어 수업을 시연했는데 교감선생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매우 기분이 좋았고 자신감도 생겼던 기억이 난다.” (교사 G, 여)

3) 교생 실습 경험의 영어 수업 실기 능력 향상과의 연계성

‘교생 실습 경험이 영어 수업 실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실습이 풍부해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자가 한 명, ‘경험이 없었으므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수가 네 명이었다. 50%인 6명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도움이 된 이유는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하지만 교생 실습 자체가 전 과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한 학급에 속해서 담임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그 담임 선생님이 영어에 특히 관심이 많거나 영어 교과전담 선생님의 공개 수업이 특히 준비되지 않는 한 많은 학생들에게 영어 수업을 참관하거나 실행해 본다는 것은 다소 어려운 점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련된 진술들은 다음과 같다.

> “실제 영어 수업을 해보지는 않았으나 동료 교생 및 현직 선배 교사들의 수업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교사 B, 남)
>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 실제 아이들 앞에서 수업을 진행해 본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 (교사 G, 여)
> “전담교사를 통해 준비된 영어 수업을 보지도 못하였고, 나의 영어 수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드백을 받지도 못하였다.” (교사 J, 여)

www.kci.go.kr

4) 교육대 재학 시 초등학교 교생 실습의 영어 수업 실기 능력을 위한 개선점

교생 실습의 영어 수업 실기 능력을 위한 개선점으로는 영어 수업을 참관하는 기회와 자신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늘어야 한다는 점, 원어민과의 협력수업 기회 확보, 수업 준비 시에 담임교사 혹은 영어교과전담 교사의 구체적인 지도가 있어야 하는 점, 수업 후 지도교사의 구체적인 피드백 혹은 대학교에 돌아와서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기 등과 같은 실제적인 점들을 들었다. 특히 자신의 수업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교수님의 피드백을 들어보기를 원한다는 점은 교생 실습의 과정이 대학교의 모의수업과 연계하여 진행될 때 얻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관련된 세부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영어 수업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고 영어 수업을 준비하고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험도 필요하다. 또한 원어민이 있다면 co-teaching을 해본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교사 D, 남)
> “영어 수업 실기능력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기회를 좀 더 많이 부여하여 실제 현장에서 경험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학교실에서 10번 연습하는 것보다 실제 초등학생들과의 1번 수업이 더 의미 있다고 본다.” (교사 E, 남)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난 그 동안 꾸준히 발전해온 초등영어교육 과정에서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어져 온 초등교사 양성기관에서의 예비교사를 위한 영어 모의수업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여 예비교사들의 초등영어 수업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실제적 방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대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 되지 않고 현장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과거 대학교에서 모의수업을 하던 경험의 기억을 되살려 응답하도록 설문을 통하여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논의하며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와 아울러 교육대학교 영어과 교과교육 시간내 혹은 기타 영어 관련 과목의 모의수업을 통한 예비교사들의 영어수업능력을 개발해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대학교 등 초등교사 양성 기관에서 모의수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교사들은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바람직한 모의수업의 횟수에 대해서는 재학 중 총 5회 정도를 기대하고 있으며 학기 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과반이었고, 학기 중 2~3 차례가 그 뒤를 이었는데 주로 지속적 실시를 통하여 발전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싶은 의도를 보였다. 이들의 응답에서는 일반 영어교육 관련 과목 안에 2~3주 분량으로 들어 있는 모의수

www.kci.go.kr

업 말고 전문적으로 모의수업을 통해 연습하여 영어수업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강좌가 있기를 바라기도 하였는데, 이는 이선(2012)의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는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에서 모의수업을 강조한 실무적 과목 개설의 필요성을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하여 반영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둘째, 모의수업은 미니형태로 많은 인원이 참여해야 하는 관계로 짧은 시간 안에 실시될 뿐 아니라 조별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응답 교사들은 2인 1조를 가장 선호하였고, 개인별로 실시하는 것이나 개인과 조 단위를 혼합하는 형태도 원하였다. 실시 시간은 조별로는 20분이나 40분을, 개인별로 한다면 20분 혹은 10분을 제시하였다. 개인당 최소 5~10분을 설정하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었는데 조별 활동의 경우 자신있는 동료가 대부분을 진행하고 일부 참여자는 매우 제한된 시간만 참여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교수자는 잘 인식하고 개인별 수업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일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모의수업 평가 시에 중요한 사항으로는 수업 내용 구성과 수업 계획서 작성, 수업 운영, 교실 영어 구사의 순으로 들었다. 이는 자신들이 모의수업을 실시할 때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과 대동소이한 경향을 나타냈다. 즉, 교수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적극 지도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넷째, 교실 영어를 익히기 위해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와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 방법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였는데 응답 교사들은 수업 전문가 혹은 선배들의 실제 수업 동영상을 통해 관찰 및 성찰하여 동료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수업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며 자신의 수업에 투입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기를 원하였다. 또한 초등 교사 네트워크나 개인적 자료 수집 및 연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도움을 구체적으로 얻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는 실제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자의 입장에서도 새겨들어야 할 부분인데 이론 등의 내용으로 수업 진도에 밀려 예비교사들 자신이 동영상 관찰 등의 간접적 경험마저 해보지 못하고 모의수업에 임해야 하는 등의 부담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2, 3학년에는 가볍게, 4학년에는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실습 중에 실제로 영어 수업을 관찰할 기회나 수업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의외로 많지 않다고 하였다. 이진경(2011)의 중등영어 교육실습생의 교실영어 사용에 대한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대학교, 교육청, 실습학교의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학생들이 교실영어를 익힐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하여 최대한 많은 영어수업을 관찰하거나 실시해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의수업은 동료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수업인데 비해 2, 3학년에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는 교육실습 중에는 초등학교 현장에 투입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교육실습을 나가기 전이나 돌아온 직후에 강의 시간 중에 이를 연계한 모의수업 활동을 하는 것도 유익할 것으로 예상된다.

www.kci.go.kr

마지막으로, 박영예(2007)도 지적하였듯이, 모의수업을 실시하는 계획과 과정에는 교수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의수업의 현장성, 동영상 활용 간접 경험 및 토의, 모의수업에 대한 개인별 피드백 현실화, 동료의 수업에 대한 토의, 학생들의 모의수업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 및 수업 능력 신장 노력 필요, 그리고 모의수업을 평가의 수단으로만 사용하기보다는 예비교사들의 영어 수업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강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이지연, 김영숙, 2011).

이상의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몇 가지 모의수업 실행과 관련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영어 수업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에 모의수업을 내실화하는 모의수업 모형 제작 등을 통하여 실무적 자료 제공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좋을 것이다. 초등영어교육을 위한 영어 모의수업 모형은 초등뿐만 아니라 중등교사의 영어 모의수업을 위한 모형 제작의 기본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초중등 영어 교사들의 영어 수업 능력 신장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현장에서 초등영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영어 수업 계획 및 내용, 수업 방법, 수업시간 운영 방법 등의 실무적 시사점과 제안 사항을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모의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투입하면 훨씬 현장감 있는 영어 수업능력 신장을 도모하는 교육이 될 것이다.

셋째, 교육대학교 재학 예비교사의 영어수업능력 신장을 위한 발판으로써 모의수업과 교육실습 등을 연계하여 활동하는 것에 대한 집중적 관심과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교, 교수자, 교육청, 초등학교의 관계자들의 인식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할 것이며, 이는 향후 우리나라 초등영어교육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비교적 교육경력이 짧은 교사들의 회고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였다는 점과 설문 조사 대상이 12명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제약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설문 대상의 확충과 아울러 교육대학교 재학생들과 교육대학교의 영어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를 대상으로 한 인식 및 의견을 조사하여 상호보완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강후동. (2008). 영어전문교사제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과 대안에 대한 연구. *초등영어교육, 14*(2), 117-143.

고경석. (1997). 초등영어 교사양성 교육과정. *초등영어교육, 3*, 18-36.

교육과학기술부. (2007).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 교육과학

www.kci.go.kr

기술부령 제941호.
김광수, 김덕규, 이승복. (1997). 초등영어교사 양성 방안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 52*(4), 395-424.
김성연. (2002).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에 대한 초등교사의 태도. *초등영어교육, 8*(2), 5-30.
김영숙. (2000). 초등영어 담당교사의 자질 연구. *초등영어교육, 6*(1), 31-62.
김영숙, 이지연. (2012). 예비영어교사의 사례보고서 작성을 통한 반성적 교사교육 탐색. *현대영어교육, 13*(4), 209-238.
김영태, 김수진. (2003). 영어로 진행하는 초등학교 영어수업의 실태. *초등영어교육, 9*(1), 5-26.
김인옥. (2007). 수업시연과 영작테스트에 나타난 초등 예비교사의 교실영어 오류 분석. *초등영어교육, 13*(2), 5-32.
김재혁. (2004). 영어능력 계발 중심의 초등영어 교사교육 모형. *영어교육연구, 16*(2), 181-208.
김진완, 신명수, 어도선, 이소영, 이현우, 황종배 (2004). 중등 영어과 이용시험의 개선을 위한 설문 조사 연구.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1*(4), 233-258.
김현진. (2009). 반성적 마이크로티칭과 비원어민 예비 영어교사의 외국어 교수 불안감. *영어어문교육, 15*(4), 265-290.
김현진. (2010). 예비 영어 교사의 교사 언어에서 나타난 상호작용 조절 패턴. *현대영어교육, 11*(3), 55-78.
남경옥. (2011). 초등학교 영어수업 분석을 통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TEE) 평가도구의 적용가능성 연구. *초등영어교육, 17*(2), 127-158.
맹은경. (2009).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에 대한 초등교사 및 학생들의 인식 조사. *현대영어교육, 10*(1), 177-206.
박약우. (1998). 초등영어 담당 교사의 자질과 제도. *영어교육, 53*(2), 107-133.
박영예. (2007). 예비 초등영어 교사교육에서 모의수업의 적용 방안. *초등영어교육, 13*(1), 49-74.
배두본. (1990). *영어교육학*. 서울: 한신문화사.
이문복, 김미경, 김혜련. (2009). 초등영어 맞춤형 심화연수 모형 개발 연구. *초등영어교육*, *15*(3), 5-35.
이병천, 김진석, 이명애, 이영주, 장우삼. (2009).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TEE) 평가도구 개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선. (2012). TEE 수업능력 신장을 위한 예비 초등영어 교사교육에서 효과적인 모의수업 방안에 대한 연구.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9*(1), 157-185.
이승복. (2005). 초등 영어교사 교실 영어 비교 연구. *영어교육, 60*(2), 161-183.
이영주, 이명애. (2011).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TEE)에 대한 중·고등학교 영어교사들의 인식조사. *현대영어교육 12*(3), 322-341.

www.kci.go.kr

이지연, 김영숙. (2011). 예비영어교사의 마이크로티칭에 대한 다각적 평가 연구.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8*(3), 209-233.

이진경. (2011). 교육실습생들의 교실영어 사용에 대한 자기평가.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8*(3), 185-208.

장경숙, 김성혜, 고현숙, 한은미, 김유미, Hayes, D. (2012). 초등 영어교사 심화연수 후 지속적 전문성 발달에 관한 연구.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9*(3), 345-370.

장경숙, 박미애. (2005). 예비교사 수업장학 모형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초등영어교육, 11*(2), 33-60.

장경숙, 이선. (2012). 교생실습이 초등영어 예비교사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연구, 24*(2), 241-267.

전영주. (2012). 영어심화연수 전후 수업분석을 통한 초등영어교사 수업개선 내용 연구. *영어교육, 67*(2), 343-365.

진경애, 김명숙, 이완기. (2002). 초등영어 교수능력 진단도구 개발 및 적용 연구. *영어교육, 57*(2), 395-421.

진경애, 이상하, 조보경. (2009). TEE 진단평가 도구 개발. *영어교육연구. 21*(4), 315-334.

허근. (2011). 초등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방안 연구. *영어어문교육, 17*(4), 395-411.

Allen, D., & Ryan, K. (1969). *Microteaching*. Ontario: Addison-Wesley.

Brewster, J., Ellis, G., & Gebhard, D. (1991). *The primary English teacher's guide*. London: Penguin English.

Clifford, R. T., Jorstad, H. L., & Lange, D. L. (1977). Students evaluation of peer-group microteaching as preparation for student teaching. *Modern Language Teaching*, *61*, 229-236.

Ellis, R. (1994). Activities and procedures for teacher preparation. In J. C. Richards & D. Nunan (Eds.), *Second language education* (pp. 26-3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Gebhard, J. G., Gaitan, S., & Oprandy, R. (1994). Beyond prescription: The student teacher as investigator. In J. C. Richards & D. Nunan (Eds.), *Second language education* (pp. 16-2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Wallace, E. (1991). *Training foreign language teachers: A reflective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Elementary/Secondary

www.kci.go.kr

박선호
경인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430-739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155
Tel: (031) 470-6332
Email: shpark@gin.ac.kr

Received 15 December 2014
Revised 28 January 2015
Accepted 15 February 2015

www.kci.go.kr